『천변풍경』의 담론 특성 연구

김 용 재(전주교대)

Ⅰ.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박태원의 장편소설『천변풍경』에 대한 담론 특성을 밝히는 데 있다.『천변풍경』은 1936년과 1937년 《조광》지에 발표한 중편 분량의 소설을 1938년 개편하여 장편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1]. 이 작품은 발표 당시부터 평론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카메라 아이식 객관적 도회 묘사"로 리얼리즘의 확대를 보여준 작품[2]으로 평가되거나 "파노라마적인 트리비얼리즘에 불과한 세태소설"[3]이라고 폄하되기도 하였다. 리얼리즘의 확대 또는 세태소설이라는 두 시각은 이 작품을 보는 중요한 척도로 인용되곤 했다.『천변풍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든 부정적으로 평가하든, 이 작품은 "모더니즘 소설과 리얼리즘 소설의 분기점에 위치한 문제작"[4]임에는 분명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납·월북 작가 해금조치 이후 박태원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대단했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세태소설론, 도시소설로서의 위상, 소설적 기법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5].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소설의 담론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소설의 서사 담론은 작가의 이야기 구성원리와 작품의 미학적 특성을 살피는 데 적합한 요소이다. 소설은 이야기와 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층위는 서술자의 태도와 위치에 따라 소설의 주제나 플롯, 인물을 창조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러한 연구는 텍스트의 '자세히 읽기'(close reading)가 전제가 된다. 또한 소설작품은 인물과 사건의 유기적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식적 특성은 소설이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사물(narrative fiction)임을 입증하고 있는 요건이다. 서사물은 서술(narration)을 근간으로 한다. 서술은 서술자와 이야기된 세계, 서술자와 등장인물의 관계 사이에서 하나의 서사 세계를 형상화하는 힘이다.「천변풍경」을 연구함에 있어, 이야기 구성 원리와 서술의 문제에 중점을 두어 담론 특성을 찾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소설의 양식적 성격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논의는『천변풍경』의 이야기 구성 원리를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서술자의 서술 전략에 따라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밝히는 일은 이 작품의 스토리 전개 방식과 플롯의 구성, 인물 형상화 방식의 기초 작업이 되기 때문이다. 이야기 구성 원리에서 추출된 서술전략에 따라, 담론의 조직 방식이 어떻게 소설 형상화에 기여하는지 살핀다. 이 작품을 해석함에 있어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천변공동체의 삶의 형상화 방식이다. 여기에서는 서술자의 태도와 인물의 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그러한 다음, 서사성의 상실 내지 부재라는 속성이 소문과 관찰, 엿보기 서술전략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살펴본다. 또한 근대성과 전통성, 반영성과 통속성의 경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도시의 생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이 작품이 도시생태학 보고서 수준에 머물었는지 아니면, 박태원 나름의 독특한 소설 형상화 방식으로 근대 경성의 공동체 삶의 양상을 재현해냈는지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Ⅱ. 이야기 구성 원리

『천변풍경』은 1930년대 어느 해 2월초부터 다음해 정월 말까지 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청계천변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도시적 삶의 양상을 50개의 절로 나눠 묘사하고 있다. 서술자는 30명이 넘는 인물을 대상으로 청계천변 주민의 일상사를 묘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야기 흐름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 구성을 하면서, 인물이 초점화자와 서술자의 적절한 통제 하에 형상화되고 있다. 인물군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제1군은 민주사, 포목점 주인으로 대표되는 중산층 계층 인물들, 제2군은 점룡이네, 이쁜이네, 필원이네, 만돌이네와 같은 서민층과 하나코, 기미코 등의 까페 여급, 천변 꺽정이(거지)들과 같은 기층민중 인물들, 제3군은 재봉, 창수, 금순 같은 경성으로 상경한 하층계층 인물들이 그것이다.

이 작품이 청계천변을 중심으로 한 공간 위에 각양각색의 인물의 생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인물이 등장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인물들이 어떠한 삶의 형식을 보여주는지 서술자는 분석해내고 있다. 이 때 서술 표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간은 빨래터와 이발소이다. 전자가 "화제의 결핍을 보는 일이 없"(1권, 100쪽)는 "여인들의 뉴스의 교환소"[6]라면, 후자는 인물 정보의 소개 장소이면서 "남자들의 생활감정의 청산소(淸算所)"[7]이다. 이 두 공간은 초점화자가 카메라를 고정시킨 중요한 지점이면서, 인물의 행태

1) 이 작품은『조광』지에「천변풍경」(1936. 8-10)과「속, 천변풍경」(1037.1-0)으로 연재하였다가 후에 장편 단행본으로 개작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원전 텍스트를 1938년판 박문출판사본으로 인정하고, 이를 저본으로 삼는다. 작품의 인용은 도서출판 빛샘에서 발간한『천변풍경1』.『천변풍경2』(2002)을 대상으로 하였다. 앞으로 작품의 인용은 권 수와 면만 본문에 표기한다.

2) 최재서,『문학과 지성』, 인문사, 1938, 98-113쪽.

3) 임화,『문학의 논리』, 학예사, 19040, 345쪽.

4) 정현숙,『박태원 문학 연구』, 1993, 175쪽

5) 주목할만한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재선, 1930년대 도시소설 연구,『문학사상』, 1988. 8.
최혜실, 모더니즘 소설에 나타나는 공간성--박태원의「천변풍경」, 구인환 외,『한국현대장편소설연구』, 삼지원, 1990.
박영순, 1930년대 세태소설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2.
이주형, 1930년대 한국장편소설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3.
오경복, 박태원 소설의 서술기법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3.
공종구, 박태원 소설의 서사지평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1992.
-----, 전형 개념을 통해서 본「천변풍경」의 현실반영 수준,『한국 현대소설론』, 국학자료원, 1994.
손화숙, 영화적 기법의 수용과 작가 의식, 강진호 외,『박태원 소설 연구』,1995.
한수영,『천변풍경』의 희극적 양식과 근대성, 강진호 외,『박태원 소설 연구』, 1995.
정현숙, 앞의 책,
장수익, 박태원 소설의 발전 과정과 그 의미,『한국 근대소설사의 탐색』. 월인, 1999.
윤정헌,『박태원 소설 연구』, 형설출판사, 1994.
문흥술, 의사 탈근대성과 동경 지향성:박태원 소설,『한국모더니즘 소설』, 청동거울, 2003.

6) 최재서,『문학과 지성』, 인문사, 104쪽

www.kci.go.kr

를 추적하는 모체가 되는 곳이다. 전자에서 인물 소개는 여인들의 대화 형식으로, 후자에서는 이발소 소년 재봉이의 관찰과 소문 전달로 이뤄진다. 서술자는 반사자 인물[8]이 보고, 듣고, 말하는 바를 옮기는 담론 형태를 보여주거나, 설명과 묘사의 교차로써 인물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물의 행동이나 모습이 구체화되는 바, 이때 중요한 점은 계절의 변화를 천변 풍경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인물의 행적을 요약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계절의 변환은 인물들의 행적을 소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삶의 전체성이나 현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사건과 사건의 연결을 통해 1년간의 천변 사람들의 행태만 재현될 뿐이다. 초점화자와 서술자 기능의 분리, 즉 보는 자와 말하는 자의 교호 작용을 통해 인물들을 독자 앞에 전경화(前景化)하고 있는 점이 이 작품에서 유지하는 서술 전략이다. 사건의 연쇄보다 인물들의 형상화가 중심 서술 대상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이야기 구성은 일상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자잘한 사건의 연계만 있을 뿐이다. 사건들은 작품 전체에서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도회지 어느 한 편에서 돈과 온정,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군상들이 모습이 반영되어 제시될 뿐이다.

계절의 변화는 사건의 변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재봉이의 시각이나 빨래터의 대화도 삶의 일상성이 드러날 뿐이지, 시대나 현실의 반영의 결과물이 아니다. 작가가 선택한 인물들의 모습은 당대 현실을 대변하는 전체성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다만, 일상적 담론 속에서 도시적 생태만 부각될 뿐이다[9]. 이러한 이야기 구성 원리를 계절 변환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절	계절 인지 서술 양태	해당 절	주 서술 대상(인물)	부수적 서술대상(인물)	비고
봄	정이월에 대독 터진다는 말이 있다. 딴은, 간간히 부는 천변 바람이 제법 쌀쌀하기는 하다.(1권 16쪽)	1-4	재봉, 창수, 민주사, 만돌어멈	귀돌어멈, 칠성어멈, 점룡어멈, 점룡이, 샘터주인 용돌이와 하인 김첨지, 민주사, 필안이네, 기생(명월이, 언년이, 취옥이), 은방주인, 이쁜이네, 관철동 작은 마누라, 거지대장, 포목	

7) 같은 책, 104쪽

8)반사자 인물(reflector-character)이란 슈탄첼의 시점 이론에서 양식(mode)면에서 '화자-인물'(중개성이 강한 인물)의 대립항으로 제시한 인물이다. 반성자라고도 번역되지만,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반사자라고 하였다. 반사자 인물에 의한 서술은 서술과정에서 인격화보다는 비인격화, 서술의 중개성(mediacy) 면에서 비중개적, 장면적, 모방적 양식으로 인지된다. '보여주기'나 '보고 모델'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삼인칭 전지적 시점인 경우, 반사자 인물은 서술자의 보고(報告)를 위하여 '그-텍스트'의 상대 인물 또는 삼인칭 대명사에서 나타난다. F.K.슈탄첼(김정신 역), 『소설의 이론』,문학과지성사, 1990, 211-218쪽 논의 참고,

9) 이러한 의미에서 이 작품을 '세태소설'이라고 규정하기보다 "생태학적 도시소설"로 규정한 이재선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80, 339쪽

				점 주인, 하나코, 기미코, 한약국집(영감, 홍서방, 귀돌이네) 신전집 작은 아들, 창수	
	음력 삼원 중순, 내일 모레 창경원의 야앵이 시작되리라는 하늘은, 매일같이 얕게 흰 구름을 띄운채, 훤언하게 흐리다.(1권 66쪽)	5-16	이쁜이네, 신전집, 민주사, 포목전 주인, 점룡이네, 만돌이네, 평화까페 여급, 금순	안성집, 한약국 영감, 필원이네, 점룡이네, 만돌아범, 귀돌어멈, 민주사, 재봉이,창수, 은방주인, 하나코, 사이상(최진사 맏아들), 전기상회 주인, 다마집 주인, 손주사, 돌석, 금순	
여름	해 뜨고 가는 비가 부실부실 내리는 오후다. "빨래애야 그저 여름 한철이지, 그것도 이제 장마나 지면 다 쓸려 내려가구...." —(중략)—참말 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1권, 158쪽, 165쪽)	17-19	금순, 이쁜이 어머니	샘터주인 용돌이, 칠성아범, 김첨지, 칠성어멈, 필원이네, 박서방	
	어저께나 그저께나 한가지로 하늘에 흰 구름이 얕이 떠도는 채, 바람 한 점 없이 그대로 폭폭 찌는 날이다.(1권, 180쪽)	20-31	재봉과 창수, 금순, 기미코, 하나코, 점룡이네, 포목전 주인, 한약국집 며느리, 민주사와 안성댁	신전집 부인, 귀돌어멈, 포목전 주인, 만돌이네(수돌), 깍정이들, 창수, 금전꾼, 종로은방주인, 사이상, 강옥주, 젊은 학생,	
가을	해질 임시의 이발소 안에는 다른 객도 없이, 복중 모양으로 마로 등 뒤에다 대고 선풍기를 틀어놓을 양이면, 오히려 선선할만한 구월 초순 어느 날이다.(2권, 58쪽)	32-34	금순, 기미코, 하나코	이발소 주인, 포목전 주인, 은방주인, 사이상(최진국), 순동이,	
	*제법 가을답게 하늘이 맑고 또 높다. 더구나 오늘은 시월 들어서서 첫 공일—. (2권, 83쪽)	35-44	금순네, 안성댁, 하나코, 점룡이, 강서방	재봉이, 한약국집 며느리,평화까페 여급들, 깍정이들, 손주사, 민주사, 취옥이, 이발소 김서방, 순이, 한약국집 영감, 할멈, 순동이 외 게임돌이 5명, 기미코, 민주사, 관철동집, 이	

www.kci.go.kr

				쁜이 어머니, 점룡이 어머니, 최서방, 하나코 어머니,	
겨울	*바라보니, 얼음을 지치고, 팽이를 돌리고 하느라, 십여 명이나 들어가 있는 개천 속에서 ---(하략)—(2권, 161쪽)	45-50	기미코, 하나코, 민주사, 손주사	깍정이, 이발소 주인, 최진국, 효준, 점룡이, 점룡이 어머니, 재봉이, 창수, 시즈코(근화식당 여급) 금순네 시아비, 이쁜이서방, 점룡, 한약국집 며느리, 귀돌어멈, 할멈, 강서방, 용돌이, 재봉이, 포목전 주인, 점룡이 어머니	
	*입춘이 내일 모레라서 그렇게 생각하여 그런지는 몰라도, 대낮의 햇살이 바로 따뜻한 것 같기도 하다.(2권,198쪽 작품 끝)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계절의 변환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인 전개를 하고 있다. 주된 등장인물만 보아도 제1군에서 제3군까지의 인물이 동시에 묘사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절에서 이야기되는 인물이 산발적이고 파편적이다. 특별한 주인공이 없이 천변에 사는 인물군들의 일상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1절과 2절만 보아도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거의 그려지고 있는 바, 이들 삶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 인물군(人物群)으로 요약된다. 제1군은 민주사, 포목전 주인이 가장 대표적이다. 민주사는 재산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부회 의원선거에 나선 인물이다. 본가보다는 첩인 관철동 안성댁을 찾아 나서거나 마작 놀이에 혼이 빠져있는 인물이다. 광교 근처에서 포목전을 경영하는 '중산모 신사' 포목전 주인은 자기 매형이 부회의원인 것을 명예로 알면서 거들먹거리며 살아간다. 제2군은 서민층으로 여성들과 하류계층이 포함된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귀돌이네, 칠성이네, 점룡이네, 이쁜이네 등처럼 남의 집 셋방살이를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여성 인물이다. 여기에 '평화까페' 여급으로 등장하는 젊은 여성들이 있다. 서술 표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여급의 삶의 양상은 주로 기미코와 하나코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하류계층을 대표하여 등장하는 인물군은 거지들과 청계천변의 샘터 주인과 용돌이, 이발소 주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소설이 청계천변 서민들의 일상적 세태를 그렸다고 한다면 그 중심에는 이 인물들이 존재한다. 제3인물군은 청계천으로 이주한 상경(上京)한 인물들이다. 재봉과 창수, 금순이 이에 해당하는 주요 인물인 바, 작가가 근대화 과정 속에 있는 경성의 어느 천변을 대상으로 도시적 생태를 분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형상화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Ⅲ장에서 자세하게 분석하겠지만, 이 인물군이 없었다면, 이 작품은 한낱 세태나 세속적 인간상, 일상사의 보고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Ⅲ. 담론 특성

1.천변 공동체 삶의 양상과 서술자의 태도 문제

『천변풍경』은 많은 인물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심에 서는 인물이 없다. Ⅱ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계절의 변환과 함께 반복과 순환의 구조로 인물이 파편화되어 골고루 등장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은 있으되, 공간과 인물의 변환이 없다는 것은 인물들의 일상적 삶의 양상을 천변이라는 공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의미로 재해석된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천변이라는 공간적 의미는 어떻게 규정되며, 궁극적으로 작가가 그려보고자 했던 근대 체험 혹은 근대 풍경과 천변 인물들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이 작품의 형상화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 척도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설이 근대의 세태나 풍속을 보고하는 수준으로 머물거나, 관찰의 결과로써 인물의 생태를 드러내는 데 집중한다면 도시 생태 보고서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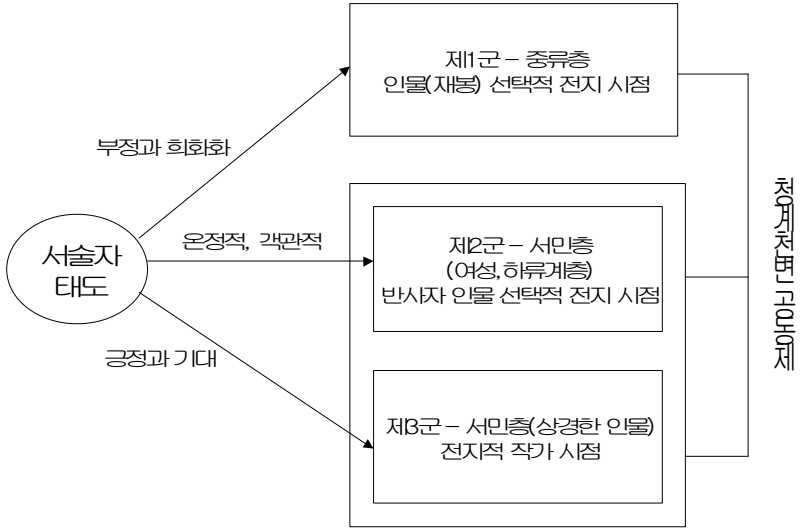
이 작품에서 중심에 놓인 공간은 무엇보다도 경성의 청계천변이다. 이를 드러내기 위한 소설적 장치로서 주요 공간은 빨래터, 이발소, 한약국집, 평화까페가 있다. 이 중 빨래터와 평화까페는 여성 인물들의 삶의 양상을 전달하거나 보여주는 주요 공간이며, 이발소는 민주사, 포목전 주인을 비롯한 중류층 인물의 모습을 관찰하거나 소문 전달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전자에서 주요 매체 인물은 점룡이 어머니라면, 후자의 매개 인물은 재봉이다. 한약국집은 청계천변 사람들의 모습을 객관화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여성들의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대비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한약국집은 가장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특별한 사건의 전개가 없는 점이 특징이다. 한약국집 주인은 근대사회에 쉽게 편입하여 여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서술자는 한약국집과 연계된 사건을 제시하지 않고, 천변에 사는 인물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 또는 허례허식에 싸인 중류층 인물들의 이중적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 비교나 대조의 대상으로만 부각시키고 있다. 하류계층 여성들의 힘든 삶의 모습을 한약국집 며느리의 일상적 행복(28절 '행복', 35절 '그들의 일요일')과 대위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든지, 매형 선거 때문에 한약국집 영감에게 잘 보이려 "밑전 들지 않는 인사"(1권, 86쪽)에 열중하는 포목전 주인의 모습(8절 '선거와 포목전 주인')을 병치시키고 있는 부분이 한 예이다.

청계천변의 인물군은 공동체의 삶을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천변 공동체 인물군을 통해 일상적인 삶을 드러내고 있다. 천변 공동체의 삶의 모습은 도시적 특성보다 농촌 공동체의 모습과 닮아 있다[10]. 궁극적으로 작가가 그려보고자 한 근대 경성의 모습, 근대 체험의 반영은 청계천변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러한 점은 각 인물군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근대 경성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청

10)장수익은 "근대 속의 공동체 그려내기"로 『천변풍경』의 주제를 제시하면서, "도시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적인 정체성", "돈보다는 의리와 인정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농촌공동체의 정체성이 역설적으로 서울 한 복판에 위치하는 공간의 정체성이 되고 있다" 고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
장수익, 근대적 일상성에 대한 성찰과 극복, 『문학과 교육』 17호, 문학교육학회, 2001. 가을. 173쪽. 참고

www.kci.go

계천변의 공간을 고정시키고 3개의 인물군을 제시한 후, 분석·설명하고 있다. 작가의 주된 초점대상이 되는 인물군은 제2군 인물들이다. 반사자 인물의 선택적 전지시점을 활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은 객관적이고 온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점룡이네, 필원이네, 귀돌이네, 이쁜이 등으로 연계되는 여성 인물들의 혹독한 현실의 모습을 인물 상호간의 배려와 인정으로 해결하고 있다. 특히 혼인 후 인생시련으로 연결되는 이쁜이, 하나코의 경우도 주위 인물이 한 식구처럼 걱정해주고, 서로 돕는 형태로 사건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기미코가 하나코에게 보여준 정성은 후술할 재봉에게 기대하는 작가의식과 연결되기도 한다. 각 인물군에게 보여주는 서술자의 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술자는 제1군 인물군에게는 부정과 희화화, 제2군 인물군에게는 온정적이고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제3군 인물군에게는 긍정과 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시골에서 상경하여 천변 공동체 속에 포함된 재봉, 창수, 금순 같은 서민층 인물들은 천변 공동체에서 지향한 작가의식을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다. 가평에서 올라 와 한약국집 심부름꾼이 된 창수는 담배 심부름을 하면서 거스름돈 받는 것도 속은 어수룩한 '촌놈'이었지만, 이내 '동아구락부' 게임돌이로 변신하여 '돈'과 '세상'을 아는 영리한 아이로 성장한다. 재봉은 이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기술자로 성장할 것은 당연하고, 금순은 어려운 시골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코, 기미코와 새 생활을 꾸려 나가며 행복을 찾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소년 소녀들의 미래를 근대 경성에 쉽게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체의 '행복'과 '평화'가 어떻게 일상적 삶과 연결되고 있는지 독특한 방식으로 분석해 내고 있다.

반면 이들의 모습을 새 희망으로 본다면 현재의 천변공동체의 삶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중류층과 서민층의 인물들을 나열함으로써 파편화된 사건을 연계하고 있다. 천변 공동체 인물들은 근대의 상징인 '돈'과 '제도'의 시각에서 재구되지 않고, 오직 인정과 의리, 온정과 배려가 있는 동네의식의 시각에서 묘사되고 있다. 천변 서민층의 삶의 양상은 전통과 근대의 경계에 서 있는 일상적 삶 속

www.kci.go.kr

에서 전경화될 뿐이다. 이러한 삶의 양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1군과 제3군의 인물 장치가 활용된다. 제1군의 인물층은 천변공동체의 시각에서는 비판과 희화화의 대상이 된다.

그 신사는, 우선, 몸이 뚱뚱하고, 더욱이 배가 앞으로 쑥 나왔다. 그것에 정비례하여, 그의 얼굴이 크고 또 살찐 것은 물론이지만, 그 큰 얼굴에 또 그대로 정비례하여, 눈, 코, 귀, 입이 모두 크다. --(중략)--- 더구나 그가 남의 앞에서 즐겨 꺼내 보는 그 시계는 참말 금시계지만, 역시 참말 십팔금인 것같이 남이 알아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듯싶은 그 시계줄이, 사실은 오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발소안에서의 풍문으로 들어 알고 있는 소년은, 그의 태도와 걸음걸이가 점잖으면 점잖을수록에, 더욱이 속으로 웃으웠다. (권1 38-39쪽)

인용문은 포목전 주인의 모습을 재봉의 시각을 빌려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외모나 행동 묘사, '풍문'과 연계시킨 허례 등으로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사(多事)한 민주사'가 겪는 우울(7,9절)과 '허실'(14절)이 "희화"(31절)로 끝나는 이야기 전개도 희화화의 한 예이다. 또한 이쁜이와 결혼한 이후에도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부랑 청년" 강석주나 하나코와 결혼했으면서도 전처와 관계도 청산하지 못한 약제사 최진국도 부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 인물들의 공통 특징은 중류층의 살림을 하면서 축첩과 놀음, 애정행각이 복잡하다는 면이다. 이러한 점은 천변공동체가 지향하는 바가 온정과 배려가 넘치는 가족의식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로 상경하여 새롭게 천변공동체에 편입된 인물에게는 상당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서술로 전개하고 있다.

(A) '사람의 새끼는 서울로--' 라는 말은 어쩌면 진언일지도 모른다. 원래 타고나온 천성이 그렇기도 하였겠지만, 도회의 감화란 실로 무서운 것인 듯싶어, 서울에 올라온 지 반 년이 채 못 되어, 그렇게도 어리고 또 순진했던 열네 살짜리 소년 창수는 이미 이만큼이나 자라고, 또 '영리' 하여진 것이다…….(권2, 22쪽)

(B)그 감격을, 바로 옆에서 있는 금순이도 거의 그대로 느꼈다. 이제까지도 기미코라는 이를 '믿버운 이' '장한 이' 라고 알아는 왔지만, 그것을 오늘처럼 강렬하게, 또 절실하게 느낀 일이 없다. 그는 새삼스러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인정' 이라는 것, '사랑' 이라는 것, 그것들이 암만이든지 서로서로의 마음을 아름답게, 또 고맙게 하여 줄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스스로 감동한 나머지에 잠깐 목 너머로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다.

그러나 우리 금순이를 좀더 감동시킬 일이 바로 사층 아래, 거리 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2권, 82쪽)

인용문 (A)는 시골에서 처음 올라왔을 때와 비교하여 창수의 변한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서술자는 착하고 어수룩했던 창수가 '종로구락부' 게임돌이로 변신하더니 급기야 한약국집 약을 훔쳐 '금의환향' 할 생각까지 하는 부도덕한 모습을 '영리한' 사람이라고 역설적으로 그린다. 이는 도시의 외향적 행태를 드러내는 도구이면서 종국에는 재봉처럼 미래의 희망이 가득한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발소 소년 '재봉' 은 이 작품에서 등장한 숱한 소년, 소녀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그려지면서 그의 시점으로 천변 중류층의 허상을 파악함으로써 천변공동체의 '행복' 과 '평화' 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인용문 (B)는 시골에서 빈한한 생활을 하다가 일찍 어린 남편과 결혼한 후,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의 구박에 시달리다가 파락호 금전꾼에게 속임을 당해 서울까지 와서 어려움을 겪다가, 기미코의 도움으로 새 삶을 찾게 된 금순의 모습을 상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금순은 아버지와 동생 순동을 화신상회에서 재회하는 기쁨을 얻는다. 혼인 시련과 상경, 위험과 그 극복, 새 생활의 시작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금순의 이야기는 서술자의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인정' 과 '사랑' 이 천변공동체의 삶에서 중요한 행복과 평화의 요소인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경우이다. 이처럼 시골에서 상경하여 새롭게 천변에 적응하는 나이 어린 등장인물들의 기대와 희망은 천변에서 강화로 이사한 신전집이나 남편 구타에 시달리며 고생만하다가 모교다리로 이사하는 만돌이네의 '종말없는 비극' 을 대비시켜 부각시키고 있다. 결국 천변의 삶의 양상은 도시적 삶의 재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일상의 행복과 평화를 지향하면서 도시적 생태의 재현에 집중하고 있다.

2.서사성의 상실과 소문, 엿보기의 관계

「천변풍경」의 서술자는 카메라의 눈으로 일상생활의 단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 때의 생활상은 객관적인 인식의 틀 속에 재해석되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연결고리 없이 공간화 되어 있을 뿐이다. 시간성이 배제된 서술 담론이기에 서사성(narrativity)[11]이 약화되고 인과적 사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서술 양식은 영화 기법의 수용 문제와 맞닿아 있다[12]. 카메라의 눈은 도시 한복판 천변의 다양한 삶을 포착하고 있다. 작가는 아무 계획 없이 카메라를 옮기는 것은 아니다. 도시적 삶의 복잡다기한 면을 다양한 군상들의 삶에 카메라의 눈을 옮기면서 형상화하고 있다.

서사성의 약화 내지는 상실이 있음에도, 이 작품이 독자에게 근대 도시의 한 면을 재현한

11) 서사성은 이야기를 이야기이게 하는 형식적·문맥적 특성을 말한다. 서사성의 정도는 시간성의 제시(예견적으로 시작에서 끝으로, 또는 소급적으로 끝에서 시작으로), 갈등(conflict)의 포함, 구체적인 상황·사건의 구성, 기호와 세계에 의한 유의미화 등에 의해서, 그 이야기가 수용자의 욕구를 어느 정도까지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
제럴드 프린스(이기우, 김용재 역), 『서사론 사전』, 민지사, 1992, 176-177쪽 참고.

12) 영화 기법의 수용 문제는 다음 논문에 자세히 논의되었다.
김경수, 한국 현대 소설의 영화적 기법, 『외국문학』 24호, 1990.
최혜실, 『천변풍경』에 나타나는 영화적 시간, 『한국 모더니즘 소설 연구』, 민지사, 1992.
손화숙, 영화적 기법의 수용과 작가의식, 강진호 외, 『박태원 소설 연구』, 깊은샘, 1995.

www.kci.go.kr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독자를 소설의 공간 속으로 끌어들이는 담론 특성 때문이다. 이 때의 담론 요소는 소문과 관찰, 엿보기와 엿듣기, 서술자의 독자 유인 담론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서술자는 두 명의 소문 전달자를 택하고 있다. 하나는 이발소 소년 재봉이요, 또 하나는 빨래터의 점룡이 어머니이다. 전자는 관찰과 동시에 소문의 집합체 역할을 하고 있고, 후자는 소문의 전달을 통해 인물들의 관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인물들의 관계상이 엿보기나 엿듣기 형태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 서술자가 사건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자를 소설 공간 속으로 유인하는 담론 형태를 가끔 엮어 나가면서 청계천변의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분석해내고 있다.

소문과 관찰의 담론 요소는 재봉과 점룡 어머니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이 작품의 주된 서술기법으로써, 서술자의 사건 연계에 이바지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는 서술자의 설명과 대화 제시, 소문과 관찰의 결과를 조합하면서 인물의 관련성을 따라가게 된다. 이러한 사건 연쇄 중 대표적인 것이 민주사와 그의 첩 안성댁, 안성댁과 밀회에 빠진 전문학교 학생과 관련이 맺는 부분이다. 7절, 9절, 14절, 31절, 39절에서 연계되는 민주사 관련 이야기는 통속적 애정 삼각구도가 희화화되어 그려지고 있는 부분이다. 민주사 첩인 안성댁은 학생과의 정회가 깊은 편이다. 학생과의 관계에 대해 민주사를 속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학생은 안성댁을 속인다. 학생도 사실은 여학생과 사랑에 빠져 있으면서 안성댁을 농락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애정 구조 속에서 민주사는 어린 기생과 마작에 빠져 있기도 한다. 이들의 애정 구조는 서술자의 통제 아래 입소문의 전달, 인물의 관찰, 요약과 설명으로써 구체화되고 있다[13].

엿보기 형식의 담론을 통해 인물을 소개하는 장면은 13절이 대표적이다. 평화까페 여급과 그곳에 놀러 온 손님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 절에서는 서술자는 엿보기, 엿듣기를 통한 보고 형식으로써 광경을 제시한 다음, 인물을 소개하는 형식을 택하고 있다. 엿보기나 엿듣기의 주체는 해당 절에서 등장한 어느 인물을 선택하는 점이 특징이다. 즉. '초점화자의 이동'을 통한 서술이라고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서술전략이다. 샘터 주인과 칠성 아범과의 대화를 통해 돈벌이의 어려움과 생활고를 전달하고 있는 '샘터문답' (17절), 포목전 주인과 재봉의 대화를 통해 금순이네 소문의 진상을 밝히고 있는 '중산모' (25절) 부분이 대표적 형태이다.

서술자의 강력한 서술 통제는 몇 인물의 시각으로 초점화되어 나타난 인물들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전략 기능을 한다. 인물선택적 전지시점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이러한 기본 서술전략은 이 작품의 전반적 특성을 가늠하고 있는 중요 요소이다. 전지적 작가가 문면에 직접 등장하여 이야기 흐름을 정리하고, 관찰과 소문으로 연계된 사건을 정리하는 방식이 기본 전략(prototype)이다. 여기에 독자를 청계천변 공간에 유인하는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현재화된 사건 제시 효과와 플롯의 연계에 기여하게 하고 있다. 독자유인 담론의 대표적 형태는 "우리가 ―을 알고 있었듯이", "독자는 ―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민주사는―", "우리의 점룡이도―" 등이다. 이러한 진술 특성은 독자를 소설 공간에 직접 개입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러한 서술 특성은 이 작품 곳곳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의 이야기(창수와 재봉의 대화―필자 설명)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을 수는 없다. 주독으로 하여 코가 벌겋고, 둥글넓적하니 개기름이 지르르 흐르는 얼굴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이 있다. 우리는 시골서 갓 올라와 근화식당을 찾아가는 이 시골사람의 뒤를 잠시 밟기로 하자. (밑줄-필자, 2권, 167쪽)

인용문은 시골에서 올라 온 사람에게 재봉이 근화식당을 찾아가는 길을 안내해 준 후, 재봉과 창수가 의아하게 생각하며 대화를 한 후, 서술자가 정리하는 부분이다. 시골사람은 금순의 시아버지이다[14].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주어를 '우리는'으로 제시하여 독자를 소설 공간 속으로 끌어들이는 서술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억이 있다', '―밟기로 하자' 등처럼, 사건의 기억을 유도하거나, 앞으로 전개되는 사건에 독자도 함께할 것을 유도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 전략은 독자유인을 통해 플롯을 구성하고, 소설 공간 속으로 독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서술 장치이다.

독자를 소설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유인 서술은 불확실성의 문체[15]를 통하여 구체화되기도 한다. 소설 곳곳에서 등장하는 "―할지도 모른다.", "―할지 모르지 않느냐?" 등의 유보적 진술이나, "―했을 것이다"와 같은 추측 진술 등처럼, 열린 언어 또는 불확실의 문체를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독자를 소설 공간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러한 문체 특성은 소문과 관찰을 통한 사건 구성이나, 단정이나 확신이 없는 진술과 연계되기도 한다.

3.근대 도시의 세태 반영과 일상적 담론

『천변풍경』은 전통성과 근대성, 반영성과 통속성[16]의 거리 조정을 통해 천변공동

13) 민주사 관련 이야기가 서술되는 절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편이다. 여기에서 5개의 절이 민주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가 서술된다. 장편소설에서 간헐적으로 제시되는 절 속에서 사건의 연계가 소문과 관찰의 결과를 통해 나열하기 위해서는, 서술자의 강력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서술자는 후술한 독자유인 담론을 통해 적정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또한, 재봉과 점룡이 어머니의 소문 전달이나 관찰에 의한 서술담론 특성은 기존 연구에서 흔히 지적한 사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기존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상술하기로 한다.

14) 금순은 16세에 시집을 갔으나, 어린 남편은 일찍 죽고 시어머니 구박을 견디다 못해 무작정 상경, 금전꾼에 유혹되어 위기를 겪다가 기미코에 의해 구제된 인물이다. 까페 여급인 기미코, 하나코와 더불어 새 살림을 한 금순은 후에 동생과 아버지를 우연히 화신상회에서 만나 행복한 삶을 꾸려나간다. 여기에서 등장한 시골노인은 금순의 시아버지로서 부인마저 잃고 상경하여 친구(근화식당 주인)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15) 김상태는 박태원 소설 전반의 문체 특성을 분석하면서, "논리적이기보다 비논리적이고, 분명한 진술이기보다 불분명한 진술"이라고 보면서, 그의 진술 양식은 회의적이고 유보적인 특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문체 특성은 박태원의 문학적 행적(월북 사실, 사회주의 이념 단체 가입과 실제 작품의 괴리)이나 중인 출신으로서의 특성과 유관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필자는 김상태 교수의 분석에 동의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진술 특성을 독자 유인 담론의 하나라고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김상태, 박태원 소설의 문체 연구,『현대소설의 언어와 현실』, 국학자료원, 1997, 39-43쪽 논의 참고.

16) 여기서 '통속성'이라는 용어는 대중성의 비칭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윌리엄스에 의하면, '대중적'이라는 용어는 ①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있는 ②고급문화와 대조되는 ③민중들이 스스로를 위해 만든 문화를 기술하기 위해 쓰이는 표현으로서의 의미 ④상업적 이윤에 의해 사람들에게 강요되는 대중매체의 의미

www.kci.go.kr

체의 일상적 삶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이 작품의 공간인 천변은 근대를 대변하는 화신상회를 비롯하여 까페, 은행 등이 인근에 포진하고 있으면서도, 인물들의 삶 속에서는 전통을 대변하는 인물들의 온정과 사랑, 가족의식이 강조되기도 한다. 또한 천변 공동체 인물들의 삶을 통해 근대 경성의 모습이 반영되기도 하면서 인물들의 관계나 운명에 있어서 통속적인 접근을 하기도 한다. 모더니즘 정신으로 천변을 분석하였다면, 근대와 반영이 강조되면서 일상적 담론이 부각되어야 마땅하다. 이 장에서는 이 작품의 형상화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두 가지 축이 어떠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분석하기로 한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천변은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성의 모습을 그려내기에 적정한 공간이다. 한약국집을 비롯하여 이발소, 신전집(하숙옥), 평화까페, 샘터가 있고 골목길에 집들이 들어서 있다. 인근 종로네거리에 은행과 화신상회(백화점), 동아구락부(당구장), 우미관(극장), 종로 은방 같은 가게가 있다. 이 정도의 공간은 근대화되는 경성의 현실이 반영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작가는 이러한 세부 공간을 근대화 현실의 총체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지 않고, 인물들의 삶의 세태와 풍속, 일상성을 추적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17]. 그러면서도 부수적 인물들의 생태 파악을 통해 식민지 근대 도시 경성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야기 흐름의 중심 플롯에 서지 않지만, 근대화 되면서 굴절되는 노동자나 서민들의 삶의 양상[18]을 부분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대표적인 예로, 민주사와 포목점 주인 매형의 부회 의회선거 출마, 청계천 복개공사 소식이 있다고 걱정하는 샘터 주인, 결혼 예물을 준비하는 하나코와 이쁜이의 양품 쇼핑, 문화적으로는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을 즐기는 한약국집 며느리와 시어머니, 귀돌이네 모습이 그려진다거나, 권투나 당구를 즐기는 인물들, 신문과 잡지 읽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 등이 근대체험의 한 양상으로 간헐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소년, 소녀의 모습, 까페나 공장 등으로 여성들이 사회 진출한 모습도 놓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근대 경성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체험 양상이 파편화되어 진술되고 있다.

반면 전통성이 드러나는 부분은 주로 혼인과 연계되는 여성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어려운 살림살이 중에서도 서로를 걱정해 주는 배려나 인정, 온정이 살아있는 이웃간 사랑이 부각되고 있다. 결혼과 연계된 대표적 인물은 이쁜이, 금순, 하나코를 들 수 있다. 이쁜이는 연초회사 직공으로 안정적 생활을 하는 강석주와 결혼한다. 하지만, 강석주는 "이쁜이를 아내로, 식당 계집을 정부로, 그리고 이 신정옥이라는 여자를 애인으로--. 이리하여 누구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시리 그 생활이 호화스럽다 생각"(2권, 136쪽)하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이쁜이 어머니나 이쁜이는 가슴앓이만 한다. 전통적 가부장적 의식의 전이가 이뤄진 부분이다. 금순의 조혼 구습으로 인한 고난상이나 하나코의 시집살이도 그 예에 해당한다.

전통과 근대의 경계의 모습을 현실의 반영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니면 세태의 풍속을 재현한 통속성에 무게를 둔 것인지는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천변의 삶을 통해 경성의 도시 체험을 일상적 담론으로 형상화 했다고 판단한다면, 인물의 선택이 대표성을 띄어야 한다. 30여명이 넘는 인물들은 Ⅱ장에서 분석했듯이 제2군 서민층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여기에서 선택된 인물의 행적과 형상은 현실 반영을 위한 적정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도시 한 편의 삶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인물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세대, 성별, 지위, 교육 정도 등에서 다양한 면을 보여준 인물이 선택되었다는 점, 근대에 쉽게 적응한 인물과 그렇지 못한 인물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근대도시 경성의 모습을 반영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평화까페 여성을 중심으로 한 애정 구도, 중류층 인물들의 축첩과 연계된 희화화된 사건 등은 통속의 범주를 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특히 이쁜이와 강석주, 점룡이와 시즈코로 연결되는 애정 구조나 민주사와 첩, 전문학교 학생의 연결관계, 하나코와 최진국, 취옥과 연계되는 애정 구조의 전개는 매우 통속적이다. 주로 긍정적인 여성의 눈물과 고통의 위무로 서사 방향을 맞추거나 부정적 인물에 대한 웃음을 유발하는 진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근대성과 전통성, 반영성과 통속성의 거리 조정을 통해 1930년대 경성의 근대체험을 일상적 담론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성[19]은 근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앤소니 이스트호프/임상훈 옮김, 『문학에서 문화연구로』, 현대미학사, 1994, 99-102쪽 참고) 통속성을 대중성의 또다른 용어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는 ①,②의 의미에 가깝다.

한편, 조남현에 의하면, 통속성은 대중성에 대해 중립에 가까운 인식을 가진 용어라고 한다. 보통 '대중소설'을 외설, 행상, 반문학, 저급 등과 같이 비하시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통속성, 오락성, 중간문학 등처럼 중립적 가치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어디까지나 독자들도 오락적 가치나 소비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통속성을 띠어도 대중적 인기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통속성이 강할수록 운명주의, 체념적 태도, 해피엔딩, 감상벽, 허위적 제스춰 등을 띠기 쉽고, 한 사회의 제반 모습들 은폐하거나 그에 대해 침묵하는 경향이 있어 부정적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조남현, '대중소설의 다면적 성격', 『조남현 평론 문학선』, 문학사상사, 1997, 165-169쪽 논의 참고)

여기서는 이러한 기존 논의에 입각하되, '일반 독자의 기대나 취향 추수적 경향을 지닌 언술이나 이야기 구조, 작가의식' 에 중심을 둔 용어이며, 현실모순의 반영이나 인식을 기피하는 경향을 통틀어 지칭하고 있다.

17) 그래서 이 작품의 형식적 특성을 '고현학(일상 생활이나 세태, 풍속을 면밀히 조사 탐구하여 보여주는 일--필자 주)의 방법론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현학의 방법론과 「천변풍경」의 관계에 대하여는 김윤식, 고현학의 방법론, 『한국문학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민음사, 1989. 참고할 것.

18) 이 작품의 근대도시 경성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논의한 김외곤은 경성이 1930년대 중반에 일본 7대도시의 하나가 됨으로써 , 한편으로는 거대 일본경제의 한 축이 되고 식민지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고 가정한다. 『천변풍경』은 이러한 근대도시 경성의 모습을 '식민지 근대화 정책과 삶의 토대 변화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농촌 노동자 도시 이주(순동 부자의 사례)와 여성의 사회적 진출 측면, 부회 선거, 경제 상황의 다양화(금전꾼, 도박꾼, 길거리 장사치 등장), 서구문화의 수입(영화, 서양식 모자와 양복, 핸드백, 에나멜 구두, 하모니카, 서양 음악 등)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도시 근대성 반영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외곤, 박태원의 『천변풍경』과 근대 도시 경성, 『성심어문논집』 26집, 성심여자대학교, 2004.를 참고할 것.

19) 일상성은 자본주의 사회의 "자기생산방식에 관한 질문 곧 근대성의 기획과 관련된 문제"로 파악한 조영복에 의하면, 생활세계의 일상성은 매우 구체적이며 감각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일상성이 미시적이거나 유동적인 것, 단편적인 트리비얼리즘으로 기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사회구조와 그에 대한 비판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조영복, 『한국 근대문학의 근대성과 일상성』, 23-24쪽 논의 참고)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수긍하면서, 『천변풍경』이 '근대생활의 모습' 또는 세태의 반영이라는 의미가 일상적 담론으로 전이되고 있어서, 일상성을 근대의 속성을 파악하는 하나의 기제로 이용될 수 있는 점을 인정하고

www.kci.go

대의 한 기제로서 이해되며, 이러한 일상 담론은 순환과 반복의 서술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은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사계절의 변화는 되풀이되는 반복의 시간 개념이다. --(중략)--
> 여기서 계절의 순환성은 일상생활이 갖는 반복과 상동구조를 이룬다. 계절의 반복, 순환성과 마찬가지로 등장인물들은 생활, 인생관에 어떤 변모를 보이지 않는다. 모든 인물들이 다시 돌아오는 계절과 병행하여 변함없는 천변의 삶을 영위한다는 느낌으로 소설은 끝난다. --(중략)--여기서 시간은 개인의 현실 체험에서 변모하는 과정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적 반복의 과정, 되돌아옴의 과정으로 드러난다.[20]

시간의 흐름은 순환과 반복의 연속기제이다. 등장인물의 변모는 없으면서 일상생활의 모습만 부각된다. 이러한 가운데 근대 경성의 천변 공동체의 삶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서술 전략 아래, 서술자는 근대성과 전통성, 반영성과 통속성의 거리 조정을 하면서 일상적 담론으로 전경화하고 있다. 이 작품이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경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다.[21]

Ⅳ. 결론

이 논문의 목적은 박태원의 장편소설『천변풍경』의 담론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작품은 1930년대 어느 해 1년간의 천변 모습을 순차적 구성과 서술자의 적절한 통제아래 30명이 넘는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다. 인물은 서술자의 태도와 위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제1은 민주사, 포목전 주인으로 대표되는 중류층 인물군, 제2는 점룡이네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 하나코 기미코 같은 여급 등의 하류계층, 제3은 재봉, 창수 등의 상경한 서민층 인물군이다.

이 인물군은 초점화자와 서술자의 교호 작용을 통해 독자에게 전경화된다. 계절의 변환을 통해 사건이 연계되지만, 근대 현실의 총체적 접근을 하지 않고 인물의 일상성과 공동체적 삶의 양상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의 변화는 반복과 순환의 의미로 해석된다. 서술자는 제1군 인물군에게는 부정과 희화화, 제2군 인물군에게 온정적, 객관적 태도, 제3군 인물군에게 긍정과 기대를 보여줌으로써, 근대를 살아가는 서민층의 공동체적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재봉과 금순의 새 생활에 대한 기대는 천변 공동체의 '평화'와 '행복'의 지향을 알려주는 기제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근대 현실의 총체적 접근보다 일상적 도시 생태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순환과 반복의 일상적 생활상만 재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서사성이 약화되고 공간성을 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바, 소문과 관찰, 엿보기 형식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여기에 독자 유인을 위한 담론형태를 투입하여 사건의 연계와 공간 재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청계천변 공동체의 도시적 삶의 모습은 일상적 담론 형태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일상성은 근대체험의 한 방식이면서, 세태 반영의 일 방법이기도 하다. 순환과 반복의 구조를 통해 공간성을 확대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담론 특성이다.

이 작품에서 전통성과 근대성, 반영성과 통속성의 거리 조정을 통해 천변공동체의 일상적 삶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작가가 선택한 공간은 근대화 속에서 변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삶의 행태를 간헐적으로 묘사하는 데 적절하고, 인물들도 신분, 나이, 직업 면에서 다양함을 보여주어 근대 경성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 대표성을 띠기도 한다. 여기에 전통성과 거리 조정을 하면서 반영과 통속을 넘나들며 도시적 일상성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논의를 전개하였다.

20) 최혜실,『한국 근대문학의 몇 가지 주제』, 소명출판, 2002, 43-44쪽.

2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후일의 과제로 남겨둔다. 이미 정현숙이 지적한 바 있듯이, 박태원 문학의 이중적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 "박태원 소설에는 반전통적인 실험 기법과 전통적인 장르 인식이, 주관적 보편성(모더니즘적 속성-필자 주)과 객관적 총체성(리얼리즘적 속성-필자 주))이 공존하거나 혼재한다."(정형숙, 박태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강진호 외,『박태원 소설 연구』, 23쪽) 또한『천변풍경』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 악습과 근대적 경박함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전통에 바탕을 둔 근대화라는 모호함을 지향하고 있다."(같은 책, 29쪽) 그러므로, 작가의식의 내면과 외면,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서 등가의 가치를 지닌 양면성 내지 이중적 속성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www.kci.go.kr

참고문헌

강진호 외,『박태원 소설 연구』, 깊은샘, 1995.
강형구, 박태원 소설 연구, 고려대 박사 논문, 1991.
공종구, 박태원 소설의 서사 지평 연구, 전남대 박사 논문, 1992.
-----, 전형 개념을 통해서 본 「천변풍경」의 현실반영 수준,『한국 현대소설론』, 국학자료원, 1994.
김봉진, 박태원 소설 연구, 한양대 박사 논문, 1992.
김상태, 박태원 소설의 문체,『현대소설의 언어와 현실』, 국학자료원, 1997.
김외곤, 박태원의 <천변풍경>과 근대 도시 경성,『성심어문논집』, 26집, 성심어문학회, 2004.
김용재이기우 역,『서사론 사전』, 민지사, 1991.
———,『한국소설의 서사론적 탐구』, 평민사, 1993.
김윤식, 박태원론—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관련 양상,『한국 현대현실주의 소설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0.
나병철, 박태원의 모더니즘적 소설 연구,『연세어문학』21집, 1988.
문흥술, 의사(擬似) 탈근대성과 동경 지향성: 박태원 소설,『한국 모더니즘 소설』, 청동거울, 2003.
박영순, 1930년대 세태소설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2.
손화숙, 영화적 기법의 수용과 작가 의식, 강진호 외,『박태원 소설 연구』, 1995.
오경복, 박태원의 서술기법 연구, 이화여대 박사 논문, 1993.
우한용, 박태원 소설의 담론 구조와 기법,『표현』제18호, 1990.
윤정헌,『박태원 소설 연구』, 형설출판사, 1994.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80.
-----, 1930년대 도시소설 연구,『문학사상』, 1988. 8.
이주형, 1930년대 한국장편소설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3.
장수익, 박태원 소설의 발전 과정과 그 의미,『한국 근대소설사의 탐색』. 월인, 1999.
-----, 근대적 일상성에 대한 성찰과 극복,『문학과 교육』, 17집, 2001. 가을.
정덕준, 박태원 소설에서의 도시적 삶, 서종택·정덕준 편,『한국현대소설 연구』, 새문사, 1990.
정현숙,『박태원 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1993.
조영복,『한국모더니즘 문학의 근대성과 일상성』, 다운샘, 1997.
최혜실, 모더니즘 소설에 나타나는 공간성--박태원의 「천변풍경」, 구인환 외,『한국현대장편소설연구』, 삼지원, 1990.
———,『한국 근대문학의 몇 가지 주제』, 소명출판, 2002.
한수영,『천변풍경』의 희극적 양식과 근대성, 강진호 외,『박태원 소설 연구』, 1995.
Martin, Wallace, *Recent Theories of Narrative,* Ithaca: Cornell Univ. Press, 1986.
Prince, Gerald, *Narratology: The Form and Functioning of Narrative,* Berlin: Mouton, 1982. 최상규 역,『서사학-서사물의 형식과 기능』, 문학과지성사, 1988.
Rimmon-Kenan, Shlomith, *Narrative Fiction: Contemporary Poetics,* London: Methuen, 1983. 최상규 역,『소설의 시학』, 문학과 지성사, 1985.
Stanzel, F. K., *A Theory of Narrative,* Trans. Charlotte Goedsch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4. 김정신 역,『소설의 이론』, 문학과비평사, 1990.

www.kci.go.kr

A Study of the feature of Discourse in *The Landscape along the Riverside*

Kim Yong-Jae(Jeonju National Univ.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it clear the feature of discourse in *The Landscape along the Riverside(Cheonbyeon-Punggyeong)*. This work described a landscape of the riverside for a year of 1930s and shaped more than thirty persons under orderly plot and properly controled narration. Characters were divided into three: the 1st group was like clerical staff Min and the owner of a linen shop, representing the middle class; the 2nd group, women centering Jeom-ryong's mother; the 3rd group, the humble class who had come to Seoul like Jae-bong and Chang-soo.

These groups of persons were in the foreground to the readers through alternating between focalizer and narrator. The story connected with the round of the seasons, didn't generally approach of modern reality, and focused on revealing the dailiness of the persons and the aspect of the community life. Thus, the change of time was analyzed into repetition and circulation. The narrator showed the 1st group denial and caricature, the 2nd the warmhearted and objective attitude, and the 3rd affirmation and expectation, focusing on the humble class's community life in the modern times. Especially, Jae-bong and Chang-soo played essential parts.

This novel centered on embodying spaciality through the equipment such as rumor, observation and peep while weakening narrativity. In addition, inserting the discourses to induce readers contributed to the story connection and the embodiment of space. Cheong-kye riversides community's city life was described through the method of daily discourses. This dailiness was a way of experience in the modern times and reflection of the prevailing society. It could not be disregarded that the feature of discourse enlarged the spaciality through the structure of circulation and repetition.